

사회제도신뢰의 인과구조에 대한 한 . 미 비교연구:

단체참여와 사회적지원의 매개효과분석

김 상 돈 |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강사

이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단체참여, 사회적 지원, 사회제도신뢰 사이의 복합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맥락에서 논의한 후, 각기 다른 맥락적 특성을 지닌 한국과 미국 양 국가를 선정하여 국제 사회종합조사(ISSP) 자료모듈인 KGSS 2004와 GSS 2001 자료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모형검증의 분석결과, 첫째, 사회단체참여는 한국에서 사회제도신뢰에 대한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관계와 유의미한 정(+)의 인과관계로 작동하는데 비해 미국에서는 상관 및 인과관계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단체참여가 한국에서 사회적 지원의 연결매개효과에 강한 정(+)의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미국은 약한 정(+)의 인과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단체참여의 중요한 인과변인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양 국가 모두 강한 정(+)의 인과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넷째,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적 자본의 두 가지 구성개념(사회제도신뢰 및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과적 영향은 사회단체참여에 의해 매개되었다는 사실 또한 이 연구에서 밝혀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각기 다른 구조적 특성을 지닌 한국과 미국 양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의 불평등,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자본, 사회연결망 등을 다차원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제시되었으며, 또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발전적 제언도 설명되었다.

주제어: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단체참여, 사회적 지원, 사회제도신뢰, 한국종합사회조사, 미국종합사회조사, 국제종합사회조사

I. 서론

사회적 신뢰는 사회세계영역에서 상호수용과 사회적 지원을 촉진시킴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을 이끌어가는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다. 개인들 사이의 관계는 신뢰에 기반을 둘 때 정확한 정보와 시의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가능케 한다(Coleman, 1988; DiMaggio & Louch, 1998). 조직수준에서의 신뢰는 다른 조직과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거래비용 감소 및 기회주의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효과성 및 적응성을 향상시킨다(Williamson, 1993). 이와 같은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은 사회제도와 국민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맥락을 가지게 된다. 사회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국민과의 합리적인 의사소통행위와 각종 사회적 지원 및 사회적 안정 등을 촉진시키고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사회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게 한다.

사회적 신뢰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자본으로 분석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자본을 분석하기 위한 노력은 Bourdieu(1984)와 Coleman(1988)의 연구 이후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특히 Billet와 Cambre(1999)는 벨기에 플렌디히(Flendish)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결사체참여와 사회인구학적 변인(교육, 직업위세, 성별, 연령) 등을 외생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데올로기, 정책에 대한 관심, 정치인신뢰, 정치지식 등을 내생변인으로 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자본의 구성개념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분석으로 추정한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또한 Burt(1992)를 위시한 Portes(1993, 1998), Newton(1999) 등의 연구자들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구성개념들(사회적 신뢰, 호혜성규범, 네트워크)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분석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분석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단체참여, 사회적 지원, 사회제도신뢰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교분석함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사회를 선정한 이유는 유교공동체주

의와 합리적 개인주의 모델을 상호 대비시키면서 비교사회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산업화과정에서 유교적 사회질서와 개인주의 가치지향이 매우 복합적이고 양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 미국사회는 공동체적 지향보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더욱 지배적이다. 그러나 양 국가 모두 개인의 합리성 및 자율성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지만 사람 및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한 여러 가지 요소들(개인들의 이기주의 및 물질만능주의, 사회제도의 지대추구행위 및 자의적 권한 행사)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기 다른 유교공동체주의와 합리적 개인주의 모델에 기초하여 사회적 자본의 구성개념들(사회단체참여, 사회적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 사이의 비교를 시도함에 있어 사회구조나 맥락 및 관계적 특성이 공통적으로 고려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자본이 요구되며, 이에는 명확한 방법론적 전제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이 연구의 첫 번째 특징은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교육, 직업위세, 소득)를 외생변인으로 하고, 사회적자본의 구성개념인 사회단체참여 및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 그리고 사회제도신뢰를 내생변인으로 설정하여 사회적 자본의 불평등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연구의 매개외생변인인 사회단체참여가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 및 사회제도신뢰에 미치는 단위영향 및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매개내생변인인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이 사회제도신뢰에 미치는 단위영향 및 매개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그 특성이 있다. 세 번째 특징은 국제사회조사연합(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에서 시행된 2004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 General Social Survey) 자료와 2001년 미국 종합사회조사(GSS: General Social Survey) 자료모듈을 활용한다. KGSS 2004와 GSS 2001 자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사회적 자본의 구성개념과 인과변인이 풍부하며, 연구결과의 일반화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연구는 ISSP 자료모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제비교연구를 증진시키는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

단체참여, 사회적 지원, 사회제도신뢰 사이의 복합적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들 변인사이의 복합적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개념을 이론적·경험적 차원에서 우선논의한 후, 사회제도신뢰를 최종내생변인으로 설정하고, 사회제도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인을 사회경제적 지위로, 사회단체참여 및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을 각각 매개 외·내생변인으로 설정하여, 한국과 미국 양 국가의 사회적 자본 구성개념의 양상과 수준을 비교 검증할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사회제도신뢰의 분석시각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구성개념이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후반에 경제학자 로우리(Loury, 1977)에 의해 제기된 이후, 1980년대에 Bourdieu(1984)는 사회적 자본을 “제도화된 연계와 관계없이 상호면식이 있어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콜만(1988)은 사회적 자본을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과의 구별을 통해 개념화하였다. 부르디외와 콜만의 논의 이후에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으로 양분되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거시적 차원에서의 접근방법은 사회적 자본을 주어진 사회의 문화적·조직적 특성으로 파악하며 사회통합과 신뢰에 초점을 맞춘다(Putnam, 1993; Fukuyama, 1995). 사회적 자본의 분석단위는 사회 또는 집단내부에서 파악한다. 반면, 개인이나 집단에서 형성되는 관계의 패턴을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미시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자본연구이다. Portes(1998)는 사회적 자본을 한 개인에게 고유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타인들과 가지는 관계들의 집합에 내재된 하나의 특성으로서 배태성(embeddedness)의

산물이라 개념화하였다. 린(Lin, 2001)은 사회적 자본을 행위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 즉 연결망 속에 있는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산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의 주된 주장은 대면적 상호작용, 구조적 공백, 배태성 등과 같은 사회 연결망의 구조적 특징으로 정의된다. 결국 사회적 자본에서 제시한 핵심적 구성개념은 사회 연결망과 사회적 신뢰이다.

사회 연결망과 사회적 신뢰사이의 인과관계는 대체로 사회적 신뢰를 결과변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신뢰가 있음으로 해서 관련행위자들은 협동을 할 수 있고 감시와 통제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자본의 결과로 설명된다(Zucker, 1986; Gambetta, 1988; Coleman, 1988; Paxton, 1999). 사회적 신뢰의 개념은 대상에 따라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로 구분된다(Giddens, 1990). 사람에 대한 신뢰는 특정한 사람과 불특정한 타인에 대한 신뢰의 개념으로서 과거의 신뢰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한편,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어떤 공동체내에서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로 정의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uhman(1988)은 제도신뢰를 사랑, 권력, 돈과 같은 상호소통 매개체를 통해 정치, 경제의 사회기능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할 때 생기는 믿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제도신뢰 개념은 제도학파의 제도화 과정으로 해석하면 다소 모호한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제도로써 국가기구나 기업과 언론 등 사회기관으로 정의하면 개념적 한계를 벗어나 경험적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도신뢰는 공적신뢰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 공적 신뢰란 사회제도의 주요영역으로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 등 주요 조직이나 규범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Sztompka, 1999). 이상의 제도신뢰에 대한 개념적 설명과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한국과 미국 양 국가의 사회적 신뢰에 대한 구조적 특성은 각기 다른 유교공동체주의와 합리적 개인주의 모델을 통해서 맥락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¹

1. 유교공동체주의와 합리적 개인주의 모델로 선정한 이유는 국가에 고유한 어떤 개념을 만들어 매우 복잡한 사회현실로부터 추상화하여 그 국가의 맥락적 설명을 강조하

유교공동체주의 모델에서는 인간관계와 사회를 매개하는 것이 권리가 아닌 도덕이라고 보며, 유교적 이상은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공공선을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도덕적인 지식을 터득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기제는 바로 국가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국가는 바로 사회지도층이 운영하는 것으로 사회기강을 세우고 도덕적으로 계도하는 주체로 간주되어왔다(국민호, 1997). 유교국가론을 지향해온 한국사회는 20세기에 일제강점기, 미군정, 한국전쟁, 압축적 근대화 등의 과정을 겪어오면서 한국적 질서 및 예의를 유지해주던 유교 문화적 전통과 사회지도층의 신뢰가 희박해져가는 반면에, 서구의 근대 및 탈근대이념은 왜곡된 형태로 수입되어 전통과 근대 그리고 탈근대 등이 혼재되어 공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제도 구축의 미비 때문에 행위와 제도간의 심각한 괴리를 경험하고 있다. 한편, 합리적 개인주의 모델의 핵심은 개인의 합리성과 자율성에 기초한다. 개인의 자율성을 유지해주는 기제가 바로 시장이다. 미국인에게 있어 시장이란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지켜주는 영역으로 국가와 정부보다 우월한 기제이다. 예컨대, 초기 산업사회시기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은 고신뢰사회로서 전혀 면식이 없는 지역의 거래당사자들과 거래도 가능할 정도로 사회적 신뢰가 확고하였다. 그러나 미국사회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우익진영의 극단론(걸프전쟁, 이라크전쟁),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마이애미, 워싱턴, 뉴욕 등) 및 정책실패 등으로 인해 사회제도신뢰가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다(Putnam, 1993; Fukuyama, 1996; Billet et al., 1999).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미국 양 국가의 공통된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도덕과 합리성, 국가와 시장,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등의 상호배타적 특성이 현저하게 대립된다. 이처럼 대조적인 한국과 미국 양국의 특성차이가 이 연구의 최종내생변인인 사회제도신뢰와 관련하여 일정한 변이를 유발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²

기 위험이다.

2. 이러한 주장의 경험적 근거로 후쿠야마(Fukuyama, 1995)는 사회적 자본의 유무 및 높고 낮음을 국가 및 사회발전의 관건이라 하며, 동아시아의 유교권 국가는 1차 집단 및 연고 집단 위주의 결속력이 강하여 제도보다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서구선진국들은 가족 및 친척범위를 초월한 사회단체와의 연대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여 사회제도신뢰가 높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세계가치조사

이상의 논의에서 사회제도신뢰는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대칭적 이라기보다는 비대칭적이다. 왜냐하면, 사회제도신뢰는 대면적 상호작용과 성찰적 인지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Newton(1997)과 Portes(2000)는 사회적 신뢰의 인과기제를 사회적으로 이질적이고 포괄적인 집단과의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Putnam(1993, 1995)이 제시한 사회적 자본의 구성개념인 네트워크와 규범 및 결과는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그들은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개념들을 각각 원인과 결과로부터 구분하여 개인의 심리적 태도변수인 사회제도신뢰를 결과변인으로 설정하며, 사회제도신뢰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기초하고 사회단체참여와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을 인과구조로 구체화시킨다.

2. 사회제도신뢰의 인과구조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육, 직업, 소득 등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체계로서 각기 다른 삶의 기회와 생활양식을 가지게 되며, 이렇게 각기 다른 조건들은 개인의 가치관 및 사회적 태도, 그리고 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회단체참여 및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 그리고 사회제도신뢰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기존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단체참여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분석한 기존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사람들의 사회참여를 조사한 연구결과(Brehm and Rahn, 1997)에서 단체참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과적 요인은 높은 교육, 높은 가계수입, 좋은 직장 등 사회경제적 지위이다. 교육과 소득수준은 결사체참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과변인으로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

(World Value Survey)를 활용한 장수찬(2002)의 연구에서, 한국과 미국 양 국가 모두 군대, 경찰,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순으로 정치제도가 높은 신뢰를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의 경우 한국은 환경운동기구, 여성운동기구, 언론, 기업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미국은 기업, 환경운동, 여성운동기구, 언론 순으로 나타났다(장수찬, 2002).

은 사람에 비해 결사체참여가 높게 나타났다(Verva, Schlozman, Brady, 1995). 직업지위와 관련해서도 전문직, 사무직 종사자 혹은 자영업자들이 생산·기능·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단체참여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Inglehart, 1999).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단체참여가 높으리라고 판단된다.

둘째,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지원사이의 인과관계 틀은 주로 사회연결망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규명된다. Granovetter(1982)는 교육, 직업지위, 수입 등의 계층적 위치가 높을수록 직장동료, 이웃, 아는 사람 등의 약한 연계(weak tie)에 의존하는 반면에,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가족, 친척 등의 강한 연계(strong tie)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린(Lin, 1982)의 위세가설에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와 권력, 사회적 위세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의 창출이 높다고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약한 연계부터 사회적 지원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사회제도신뢰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사회적 보상과 명예를 이끌어낼 능력이 있으므로 사회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Olson, 1965). 이러한 주장의 주된 근거는 부자들의 경우 타인을 신뢰하여 생기는 위험부담으로 인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를 잃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유일한 생존수단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Banfield, 1967). 이들의 연구결과를 비추어볼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공공 및 민간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술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적 자본의 구성개념들(사회단체참여, 사회적 지원, 사회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일차적이고 본질적인 인과변인이라면, 사회단체참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연결망의 기능적 효과(사회적 지원, 사회적 신뢰) 사이의 매개변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사회단체참여를 매개변인으로 선정한 이유는 구성원과의 대면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행위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이 성립되고, 이해관계가 형성되며, 사회적 행위가

형성·발전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유통되고 있는 경제적·정치적 도움과 호혜성규범 및 사회적 신뢰 등 기능적 효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첫째, 사회단체참여와 사회적 지원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기존연구는 Burt의 구조적 공백, McPherson의 생태지위 등의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Burt(1992)가 제시한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개념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결망들 사이에서 그 중심에 있는 사람과는 어떤 형태로든 연결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관계가 없는 상태를 지칭한다. McPherson (1983)이 제시한 생태지위(niche)란 개체의 환경 속에서 자원을 매개로 맺는 관계의 구체적 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체가 의존하는 자원들의 종류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면 그 개체가 보유한 생태지위의 범위는 넓을 것이고, 반대로 특정한 종류의 자원에만 의존한다면 생태지위의 범위는 좁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단체에는 구조적 공백과 생태지위(niche)가 등장하는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 사회단체 참여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참여자의 관심영역을 확장시키고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며, 사회단체에 의해 주관되는 다양한 행사를 조직화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와 관련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기술을 연마하게 되어 정치참여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양보하는 공적 시민정신을 고취시키며 무임승차를 배격하는 윤리를 배양한다고 하였다(Tocqueville, 1835). Putnam(1995)은 사회단체에 가입 및 소속됨으로써 좋은 이웃과 동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사회적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회 등을 얻게 되며, 사람들 사이에 축적된 연결망과 연결망 안에서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시민의식이나 규범 및 사회적 신뢰 등이 형성된다고 제시한다. 이상의 사회단체참여는 사회적 자본의 한 범주로서 사회적 지원과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과변인이다.

한편, 사회단체참여가 사회연결망유형의 한 범주에 포함된다면, 사회적 지원은 사회연결망의 기능으로 표현되어진다. 사회적 지원이란 사람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정서적 지원, 서비스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과 사회제도신뢰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시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론자들(Pagden, 1988; Fukuyama, 1995)에 의해서 비롯된다. Pagden(1988)은 내집단족쇄(fetters of in-group) 용어를 사용하면서 혈연·지연 등 자연적 관계를 통한 공동체적 유대감과 학연·직장동료관계와 같은 이익집단생활을 통한 유대감이 집단 내 소속감으로 되어 사람에게 대한 신뢰는 높지만, 사람에게 대한 신뢰가 제도에 대한 신뢰의 희생을 기반으로 확대된다고 하였다. Fukuyama(1995)는 반경범위개념을 사용하면서 저신뢰 사회의 공통점을 강력한 가족주의 문화와 중앙집권 등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된다고 지적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에 있어서 가족과 국가사이의 중간지대, 즉 양자사이의 중개집단들의 자율과 자치를 억압하게 되어 사람 및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연구결과(김용학, 손재석, 1998; 이재열, 1998)에서도 법적인 계약서나 재정적인 보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일,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 계를 통해 금리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얻는 등 사회적 지원이 가족 및 개인연결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적 영역의 연결망활용은 공적영역의 신뢰를 식민화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저신뢰사회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지원의 논의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강한 연계를 활용할수록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희생된다고 본 제한적 연대의 개념들(예: 내집단족쇄, 반경범위 등)에 대한 인과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 연구는 사회적지원의 연결망 활용과 사회제도신뢰 사이의 인과구조를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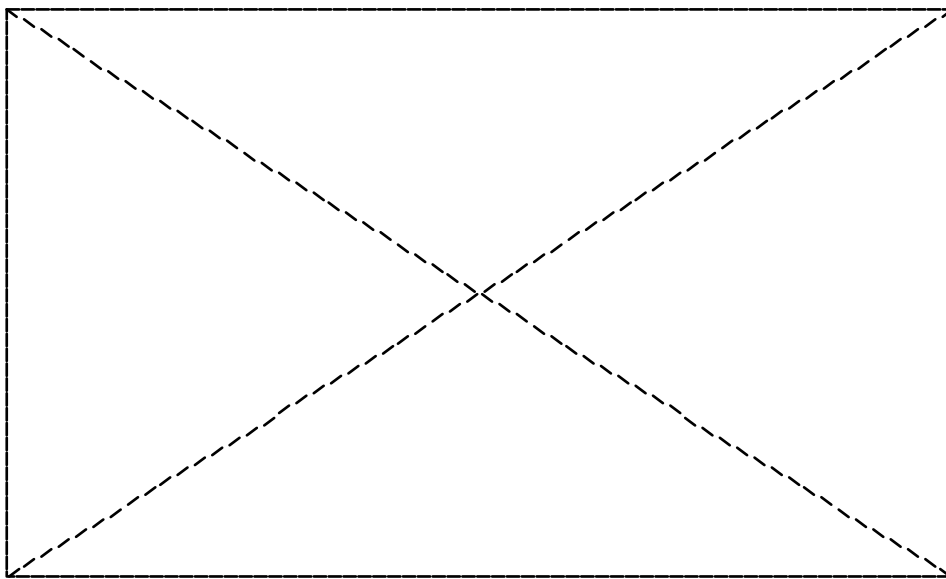
3.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구성한 분석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이 연구의 최종 내생변인은 사회제도신뢰이다. 사회제도신뢰는 대기업, 언론계, 교육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을 포함한 11개의 하위영역으로 설정하여 한국과 미국 양 국가의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다차원적·통합적으로 비교분석한다.

사회제도신뢰의 영향요인은 사회 경제적 지위와 사회단체참여, 그리고 사

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으로 설정하고, 통제변인으로 인구학적 요인을 설정한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육년수, 직업위세, 소득 등 세 가지 하위범주로 설정하여 측정한다. 사회단체참여와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은 각각 매개외·내생변인으로 한다. 사회단체 참여는 정당단체, 노동조합, 시민단체, 취미단체, 이웃단체, 기타단체로 하고,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은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서비스지원 등 세 가지 하위범주로 설정하여 측정한다.

그림 1. 분석 모형



ξ_1	사회경제적 지위	X_5	기혼더미	Y_{10}	기업계 신뢰
ξ_2	남성더미	X_6	광역시더미	Y_{11}	교육계 신뢰
ξ_3	기혼더미	Y_1	정당단체참여	Y_{12}	언론계 신뢰
ξ_4	광역시 더미	Y_2	시민단체참여	Y_{13}	방송계 신뢰
η_1	사회단체참여	Y_3	노동조합참여	Y_{14}	의료계 신뢰
η_2	사회적 지원	Y_4	취미단체참여	Y_{15}	행정부 신뢰
η_3	사회적 신뢰	Y_5	이웃단체참여	Y_{16}	입법부 신뢰
X_1	교육년수	Y_6	기타단체참여	Y_{17}	사법부 신뢰
X_2	직업위세	Y_7	정서적 지원	Y_{18}	학계 신뢰
X_3	소득	Y_8	경제적 지원	Y_{19}	군대 신뢰
X_4	남성더미	Y_9	서비스 지원	Y_{20}	금융계 신뢰

—▶ : 기본 모형에 대한 인과 경로임.

----▶ : 이론적·경험적 개연성과 수정지수(MI)에 따라 추정될 인과 경로임.

이상의 분석모형을 토대로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단체참여, 사회적지원의 연결망활용, 사회제도신뢰 사이의 연구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사회제도신뢰는 한국 사람보다 미국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사회단체 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다.

<연구가설 3>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사회적 지원을 강한 연계 보다는 약한 연계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4>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제도 신뢰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5> 사회단체참여에 적극적인 사람일수록 사회제도신뢰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6> 사회단체참여에 적극적일수록 사회적 지원을 강한 연계보다는 약한 연계에 더 많이 요청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7> 사회적 지원을 약한 연계에 더 많이 요청할수록 사회제도신뢰가 높을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자료수집방법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단체참여, 사회적 지원, 사회제도신뢰 사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할 자료는 KGSS 2004와 GSS 2001이다.

KGSS 2004 자료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2004년 7~8월 동안 실시하였으며, 표집절차는 전국 주민등록 전산자료로부터 다단계지역층 화표본추출법에 의해 추출되는데, 그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

총표집지역수를 200개로 선정하고 이를 1차표집단위인 전국 광역시·도의 가구수 분포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둘째, 각 광역시·도로부터 배분된 수만큼의 2차표집단위인 읍·면·동을 인구비례확률표집 원칙을 적용하여 무작위로 추출한다. 셋째, 이렇게 추출된 각 읍·면·동으로부터 한 개의 최종표집지역(면의 경우에는 리, 동의 경우엔 통·반)을 무작위로 선정한다. 넷째, 선정된 통·반 또는 리에서 10개의 가구를 계통표집한다. 계통표집된 가구 내에서만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들의 리스트를 작성한 후 이들 가운데 태어난 월일이 가장 빠른 사람을 조사대상자로 삼는다. 조사된 설문지의 유효사례수는 1,312명이다. 이 연구에 사용할 변인들에 대한 응답 가운데 무응답(‘모르겠다’ 포함) 문항에 개별평균값으로 대체한 후 결측치(missing values)(n=343)를 일률적(listwise)으로 제거하여 추출된 총 979명이 최종 분석사례수(N)를 형성하였다. 평균 대체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변인들의 분포추정치 왜곡 가능성의 성격을 지니지만, 결측치를 가능한 정확한 값으로 대체함으로써 무응답의 편차감소와 연구결과의 일반화 및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GSS 2001 자료는 시카고대학의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에 의해 수집된 자료로서 2001년 2월에서 5월에 걸쳐 면접자 조사방식에 의해 수집되었다. 표집방법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단계지역 확률표집방법으로서 1차 표집단위는 표준대도시지역(SMSA: Standar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또는 비도시지역의 카운티들을 지역, 연령 그리고 인종에 따라 층화한 후 그 단위를 블록그룹이나 열람구역별로 인종과 소득에 따라 층화한다. 최종표집단위는 블록이며, 블록들을 크기에 준해 확률을 조정하고, 특정블록을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한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부실한 응답사례를 제외한 유효사례수는 2,765명이다. 한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무응답(‘모르겠다’ 포함)의 문항에 개별평균값으로 대체한 후 결측치(missing values)(n=2,230)를 일률적(listwise)으로 제거하여 추출된 총 535명이 이 연구의 최종 분석사례 수(N)를 형성하였다.

2. 변수정의 및 측정

이 연구의 최종내생변인은 사회제도신뢰로 대기업, 교육계, 언론계, 금융계, 학계, 의료계, 방송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군대 등 11가지 영역을 포함한다. 이렇게 구성된 사회제도신뢰는 “신뢰하지 않음”, “다소신뢰”, “매우신뢰” 순으로 1점에서 3점을 부여하여 연속변수로 분석에 사용한다.

이 연구의 매개 내생변인인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유형은 사회연결망 연구자들의 연계유형에서 제시한 가족, 친척, 이웃, 친구, 직장동료, 성직자, 사회사업가, 의사 등을 가족, 친척, 비 친척으로 분류한 후 이들 유형을 각각 교차(3×3)시켜 아홉 가지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 활용유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유형은 강한 연계에 답한 순으로 정리한 후, 동일한 응답범주는 첫 번째 응답에 강한 연계로 답한 경우를 우선 기준으로 1점에서부터 9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여 측정한다.

이 연구의 매개외생변인은 사회단체참여로 정치단체, 노조단체, 시민단체, 취미단체, 이웃단체, 기타단체 등 여섯 가지 영역의 사회단체 참여수준을 측정한다. 사회단체참여에 대한 영역은 “소속된 경험이 없음”, “과거에 소속된 경험 있음”, “소속되어 소극적 활동”, “소속되어 적극적 활동”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각각에 1점부터 4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표 1> 내생변인들의 설문문항 및 변수정의

변인 (정의)	설문문항	측정척도 [범위]
사회제도신뢰 (institution)	11개 주요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의 정도 ①매우 신뢰 ②다소 신뢰 ③매우 불신	연속변수 [1-3]
사회적 지원 (SUPPORT)	정서적 지원 ① ②	연속변수 [1-9]
	경제적 지원 ① ②	연속변수 [1-9]
	서비스 지원 ① ②	연속변수 [1-9]
사회단체참여 (ASSOCIATION)	6개 사회단체참여에 대한 참여 여부 ① 소속된 경험 무 ② 소속된 경험 ③ 소극적 활동 ④ 적극적 활동	연속변수 [1-4]

이 연구의 외생변인은 사회경제적 지위이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육년수, 소득, 직업위세로 설정한다. 교육년수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인과변인으로서 정규교육을 받은 수학년수에 근거하여 0점에서부터 23점으로 측정한다. 응답자의 월평균소득은 KGSS 2004와 GSS 2001 자료모듈에 있는 원 자료를 근거로 각 범주에 중간값을 부여하여 자연대수로 변환하여 측정한다. 응답자의 직업은 간즈붐과 트라이먼(Ganzeboom & Trieman, 1996)에 의하여 구성된 표준국제직업위세척도(SIOPS: Standard International Occupation Prestige Scale)에서 제시한 16점부터 88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한편, 인구학적 특성인 성, 연령, 결혼상태, 지역 등 네 가지 변인은 통제 변인으로 설정한다. 성은 더미변수로서 여성일 경우는 0, 남성일 경우는 1로 부여 한다. 연령은 자연연령으로 분석에 사용한다. 결혼 상태는 더미변수로서 미혼 및 이혼·사별·별거일 경우는 0, 기혼일 경우는 1로 부여하여 더미 변수로 사용한다. 지역은 한국사회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일 경우에는 1, 기타도시일 경우는 0으로, 미국사회의 경우 메트로폴리스는 1, 기타도시는 0으로 부여하여 더미변수로 만들어 사용한다.

<표 2> 사회인구학적특성에 사용된 설문문항 및 변수정의

변 인	설 문 문 항	측정척도
사회경제적 지위 (SES)	교육 년수	연속변수
	직업 위세	SIOPS [16-87]
	소득 수준	ln(income)
통제변인	연령	연속변수
	성별	남성=1 여성=0
	결혼여부	기혼=1 미혼=0 이혼·사별·별거=0
	주거지역	광역도사=1 기타도사=0

3. 자료분석방법

이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단체참여, 사회적지원의 연결망활용, 사회 제도신뢰 사이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 확인적 요인 분석(CFA), 그리고 공변량 구조분석(LISREL) 등을 시도한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일련의 경쟁적인 요인모형들을 각기 추정하여 모형부합지수를 각 모형별로 산출하여 최적의 모형을 추정한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2개 하위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모형분석의 전략은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 사회적 지원, 사회단체참여 등 내생잠재변수와 외생잠재 변수인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통제변수를 이론변수로 설정하여 제반 이론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한편,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각 별도의 결과변인 혹은 최종적 내생변인으로 설정하고 사회단체참여와 사회적지원의 연결망활용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제반 예측변인들의 인과적 단위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구조모형을 추정한다. 이어서 각 결과변인을 설명하는 인과요인들의 직접·간접·전체 영향을 분리시키는 경로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각 인과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각 차원들을 결과변인으로 간주한 공변량 구조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이론 변인들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 11.0 및 LISREL 8.52를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에 포함된 한국과 미국 양 국가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 특성을 살펴보면, 교육년수는 한국(평균=12.422년)보다 미국(평균=

13.629년)에서 약간 높으며, 직업위세점수는 한국(평균=40.315점)보다 미국(47.512점)에서 7.197 정도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한국(평균=5.394)보다 미국(평균=10.464)에서 높게 나타났다.³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한국보다 미국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한국(평균=41.503세)보다 미국(평균=42.966세)에서 약간 높으며, 남성비율은 미국(45.0%)보다 한국(46.0%)에서 약간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기혼비율은 미국(45.0%)보다 한국(68.6%)에서 높으며, 광역시(1특별시 6광역시)에 거주하는 한국의 비율은 47.9%인 반면에 메트로폴리스에 거주하는 미국의 비율은 29.2%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사회적 자본의 구성개념들(사회단체참여,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 사회제도신뢰)을 살펴보면, 사회단체참여는 한국(평균=1.479)보다 미국(평균=1.732)에서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t=-8.045, p<.001$),

<표 3>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평균[범위]		S.D.	
		한국 (N=979)	미국 (N=535)	한국	미국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년수	12.422 [0-23]	13.629 [1-20]	4.032	2.910
	SIOPS	40.315 [16-87]	47.512 [16-88]	13.376	16.147
	소득	5.394 [3.219-6.957]	10.464 [6.215-11.653]	.746	.950
인구학적 특성	연령	41.503 [18-84]	42.966 [20-86]	14.433	16.029
	남성	.460 [0-1]	.450 [0-1]	.499	.498
	기혼	.686 [0-1]	.450 [0-1]	.467	.498
	광역도시	.479 [0-1]	.292 [0-1]	.500	.455

주 SES(한국=.855 * 교육년수+ .725 * SIOPS+ .805 * 로그소득, 미국=.811 * 교육년수+ .791 * SIOPS+ .673 * 로그소득).

3. 사회경제적 지위변수인 교육, 직업위세, 로그소득을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한국의 KGSS 2004와 미국의 GSS2001 자료 모두 하나의 주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65.2%, 57.0%로 나타났다. 이렇게 구성된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육, 직업, 소득변수에 가중치가 부여된 조합변수로서 KGSS 2004[사회경제적 지위=.855*교육(교육년수)+.725*직업(SIOPS)+.805*소득(로그소득)] GSS 2001[사회경제적지위=.811*교육(교육년수)+.791*직업위세(SIOPS)+.673*소득(로그소득)]으로 구성할 수 있고 선형조합인 요인점수(factor score)를 그 값으로 가지게 된다.

사회적지원의 연결망활용은 미국(평균=3.187)보다 한국(평균=4.541)에서 약한 연계를 더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9.337$, $p<.001$). 사회제도신뢰는 한국(평균=1.733)보다 미국(평균=2.075)에서 높게 나타났다($t=-14.463$, $p<.001$). 이로써 사회제도신뢰는 한국 사람보다 미국사람이 더 높을 것이라고 제시한 <연구가설 1>을 수용하게 되었다.

<표 4> 사회적자본의 기술통계(한국: N=979; 미국: N=535)

변인		평균		S.D.		차이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평균차이	절대량차이	t 값
사회제도신뢰	대기업 신뢰	1.671	2.019	.548	.584	-.348***	-.312***	-8.123
	교육계 신뢰	1.784	2.100	.575	.624	-.316***	-.267***	-7.273
	언론계 신뢰	1.639	1.680	.588	.659	-.041**	.030***	-3.145
	방송계 신뢰	1.779	1.665	.600	.651	.114	.165	1.506
	의료계 신뢰	1.873	2.274	.574	.639	-.401***	-.336***	-8.585
	행정부 신뢰	1.461	2.046	.531	.683	-.585***	-.433***	-13.578
	입법부 신뢰	1.180	1.905	.403	.586	-.725***	-.542***	-19.212
	사법부 신뢰	1.944	2.275	.591	.639	-.331***	-.283***	-7.671
	학계 신뢰	1.957	2.329	.539	.613	-.372***	-.298***	-8.496
	군대 신뢰	1.915	2.468	.649	.614	-.553***	-.588***	-12.062
	금융계 신뢰	1.865	2.068	.593	.629	-.203***	-.167***	-4.463
전 체	1.733	2.075	.318	.343	-.342***	-.317***	-14.463	
사회적 지원	정서적 지원	5.813	3.802	2.672	2.792	2.011***	2.131***	10.916
	경제적 지원	4.843	3.202	2.853	2.788	1.641***	1.576***	7.167
	서비스 지원	2.967	2.557	2.352	2.457	.410***	.515***	4.336
	전 체	4.541	3.187	1.880	1.950	1.354***	1.424***	9.337
단체참여	정당단체 참여	1.163	1.593	.518	1.032	-.430***	.084***	-8.129
	시민단체 참여	1.098	1.874	.421	1.229	-.776***	.032***	-12.751
	노동조합 참여	1.275	1.512	.674	.956	-.237***	.045***	-7.695
	취미단체 참여	1.819	2.166	1.071	1.366	-.347***	-.052***	-4.389
	이웃단체 참여	1.614	1.493	1.041	.977	.121	.057	.567
	기타단체 참여	1.905	1.753	1.208	1.151	.152	.095	1.199
	전 체	1.479	1.732	.469	.702	-.253***	-.020***	-8.045

주: 평균 및 절대량 차이는 기술통계의 차이(한국-미국)이며 통계적 유의도는 t-test에 대한 검증임.

* $p < .05$, ** $p < .01$, *** $p < .001$.

2. 모형검증의 타당도평가

이 절에서는 내생변인들에 대한 모형검증의 타당도를 분석한다. 모형검증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신뢰,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 사회단체참여 변인 등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이 사용된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표본적절성 측정치인 KMO값(한국=.773, 미국=.752)은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의 유의수준은 양 국가 모두 .000으로 .05보다 작아 자료의 상관이 3요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요인은 양 국가 모두 전체 20개 문항 가운데 11개의 측정변인들이 묶이는 것으로서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해당한다. 제2요인은 양 국가 모두 전체문항 가운데 6개 문항의 측정변인을 요인 구성하였으며 사회단체참여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제3요인은 양 국가 모두 전체문항 가운데 3개문항의 측정변인을 요인 구성하였으며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에 해당한다. 또한 사회제도신뢰, 사회적지원의 연결망활용, 사회단체참여의 내적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Cronbach의 α 계수로 평가한 결과(한국=.8029, .5192, .5051; 미국=.7658, .5746, .6933)로 수용할만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한국과 미국 양 국가 모두 사회제도신뢰, 사회적지원의 연결망활용, 사회단체참여변인이 각기 별개구성체로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문항들이 어떠한 공통요인도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된 귀무모형이나 모든 문항들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단일차원의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정된 1-요인모형, 두 가지 별개차원의 개념들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정된 2요인모형, 세 가지 차원의 개념들을 각기 별도로 측정하도록 제약을 가해진 3요인모형으로 구성되었다.

<표 5> 사회적 자본 하위차원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결과(한국:N= 979; 미국:N=535)

	(M0) 귀무모형		(M1) 1요인모형		2요인모형						3-요인모형 ⁹⁾	
	한국	미국	한국	미국	(M2_1)		(M2_2)		(M2_3) ⁸⁾		한국	미국
χ^2	4465.901 (p<.001)	2671.725 (p<.001)	1235.222 (p<.001)	1097.272 (p<.001)	887.151 (p<.001)	533.939 (p<.001)	1030.632 (p<.001)	942.579 (p<.001)	899.901 (p<.001)	540.723 (p<.001)	692.709 (p<.001)	383.604 (p<.001)
DF	190	190	170	170	169	169	169	169	169	169	167	167
GFI ¹⁾	-	-	.888	.830	.917	.909	.905	.850	.916	.908	.934	.933
AGFI ²⁾	-	-	.861	.789	.897	.887	.882	.814	.895	.886	.917	.916
NFI ³⁾	-	-	.745	.651	.809	.814	.788	.713	.806	.791	.850	.855
CFI ⁴⁾	-	-	.773	.693	.840	.886	.818	.759	.837	.844	.882	.911
IFI ⁵⁾	-	-	.774	.695	.841	.916	.819	.761	.837	.845	.883	.912

- 1) Goodness of Fit Index.
- 2)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3) Normed Fit Index.
- 4) Comparative Fit Index.
- 5) Incremental Fit Index.
- 6) 두 요인들 간(단체참여+ 사회적 지원 對 사회제도신뢰)의 상관관계[한국=.068(p>.05); 미국=.156(p>.05)]
- 7) 두 요인들 간(단체참여+ 사회제도신뢰 對 사회적 지원)의 상관관계[한국=.052(p>.05); 미국=-.002(p>.05)]
- 8) 두 요인들 간(사회제도신뢰+ 사회적 지원 對 단체참여)의 상관관계[한국=.065(p>.05);미국=.157(p<.01)]
- 9) 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한국: .051(p>.05); .061(p>.05); .123(p<.05); 미국: -.013(p>.05),.157(p<.01), .092(p>.05)]

<표 5>를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 양 국가 모두 귀무모형이나 1-요인모형에 비해 2요인모형들(M2_1, M2_2, M2_3)의 경우가 χ^2 수치($p(\Delta\chi^2) < .001$)가 적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형부합지수도 큼을 알 수 있다. 2-요인모형 가운데 사회단체참여와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이 하나의 요인을 형성하고 사회제도신뢰가 또 하나의 요인을 형성하도록 제약을 가한 M2_1 모형이 M2_2 모형 및 M2_3 모형에 비해 χ^2 수치($p(\Delta\chi^2) < .001$)가 적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형부합지수(한국: GFI=.917 AGFI=.897 NFI=.809 CFI=.840 IFI=.841 RMSEA=.0569; 미국: GFI=.909, AGFI=.887, NFI=.793, CFI=.846, IFI=.847 RMSEA=.0636)도 큼을 알 수 있어 더 적절한 모형이었다. 그러나 세 가지 차원의 개념들을 각기 별도로 측정하도록 제약이 가해진 3-요인모형은 어떠한 2요인모형들에 비해서 보다는 모형부합지수(한국: GFI=.934 AGFI=.917 NFI=.850 CFI=.882 IFI=.883

RMSEA=.0567; 미국: GFI=.933, AGFI=.916, NFI=.855, CFI=.911, IFI=.912 RMSEA=.0493)가 현격히 향상되었다. 이는 양 국가 모두 여러 가지 경쟁적인 내재모형 가운데 3요인모형이 최적모형으로써 분석에 포함된 문항들이 세 가지 별개의 구성체들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 구성체들 간에는 판별집합타당도가 유지됨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이로써 3요인모형에 잠재된 변인들(사회단체참여,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 사회제도신뢰)이 각기 별개의 구성체들임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 내생변인들 상호간에는 연관관계도 그다지 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모형검증의 추정결과

이 절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단체참여, 사회적 지원, 사회제도신뢰 사이가 이론적·경험적 사실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이들 변인들 사이의 상관 및 인과관계, 그리고 경로분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LISREL로 추정한다.⁴

측정모형분석에 근거하여 여타변인들의 영향이 통제되지 않는 영차상관관계(zero-order correlation)를 산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우선, 사회제도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적 요인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r=-.192$)변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관계로 나타난 반면에, 미국에서는 사회단체참여($r=.158$)변인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제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국에서는 사회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적 요인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남성더미($r=-.094$), 기혼더미($r=-.451$) 등 두 가지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

4. 측정모형분석에 앞서 27개 측정변인에 대한 다중 공선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연령변인이 한국이 .646으로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바 연령변인을 제외하고 재추정하여 분석하였다

관계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r=.197$), 남성더미($r=-.152$), 기혼더미($r=-.352$), 광역시 더미($r=.147$) 등 네 가지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서는 여성일수록, 미혼일수록 사회적 지원을 약한 연계에 요청되어진다면, 미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미혼일수록, 메트로폴리스에 거주할수록 사회적 지원을 약한 연계에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사회단체참여에 유의미한 인과적 요인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r=.387$), 남성더미($r=.273$), 기혼더미($r=.104$), 광역시더미($r=-.136$)변인 등 네 가지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관계로 나타난 반면에, 미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r=.409$), 기혼더미($r=.109$), 광역시더미($r=.146$) 등 세 가지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한국에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기혼일수록, 기타도시에 거주할수록 사회단체참여에 적극적인 반면에, 미국에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메트로폴리스에 거주할수록 사회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사회제도신뢰와 인과변인사이의 인과관계는 구조모형에 대한 추정을 통해 규명한다. 한국의 기본모형과 최종모형의 추정 결과, 기본모형의 모형부합지수는 정확합치인 χ^2 수치가 .001수준에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GFI=.911, AGFI=.890, NFI=.790, CFI=.837, IFI=.838, 근사합치인 RMSEA=.0588로 .08보다 작아 수용할만한 수준의 모형부합지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최종모형의 모형부합지수는 기본모형과 마찬가지로 χ^2 수치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며 GFI=.901, AGFI=.878, NFI=.783, CFI=.837, IFI=.839, RMSEA=.0594로 기본모형보다 다소 향상되었다. 결정계수에 있어서도, 최종모형은 기본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기본모형의 $R^2=.117$.222 .044; 최종모형의 $R^2=.188$, .104, .056).

동일한 방식으로 미국의 기본모형과 최종모형의 추정 결과, 기본모형의 모형부합지수는 정확합치인 χ^2 수치가 .001수준에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GFI=.904, AGFI=.882, NFI=.801, CFI=.867, IFI=.869, 근사합치인 RMSEA=.0545로 수용할만한 수준의 모형부합지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반

그림 2. 사회제도신뢰를 검증하기 위한 최종모형-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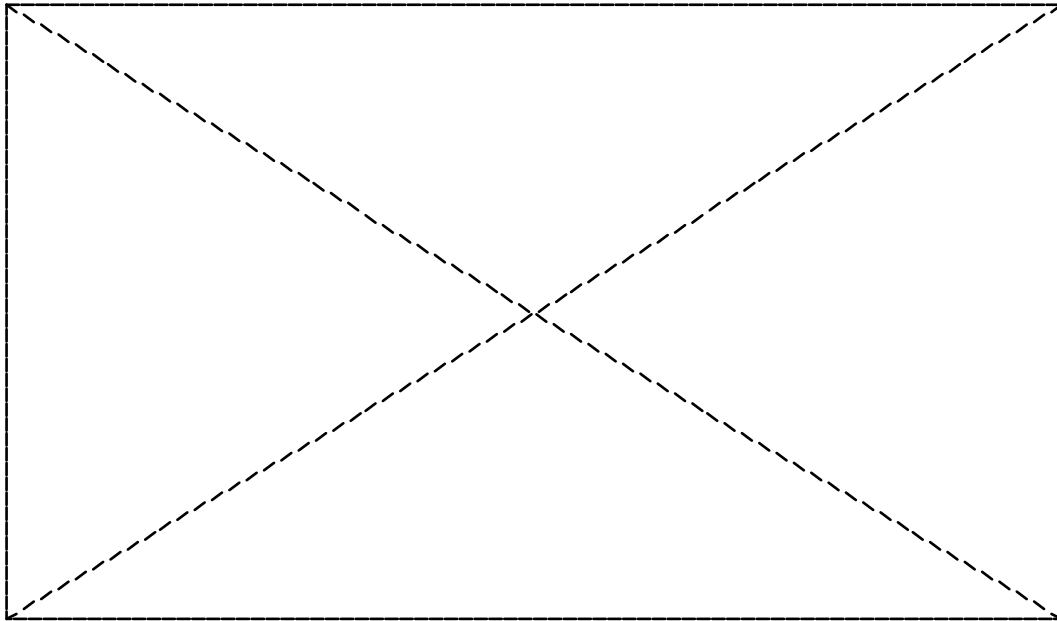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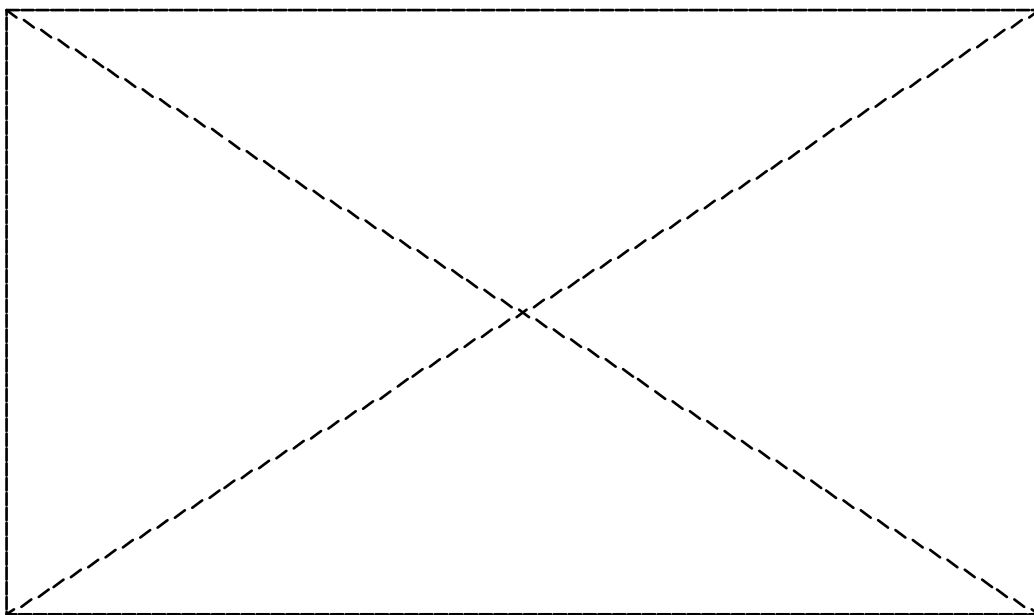


그림 3. 사회제도신뢰를 검증하기위한 최종모형-미국



적으로 그리 높지 않는 부합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최종모형의 모형 부합지수는 기본모형과 마찬가지로 χ^2 수치가 .001 수준에서 유의하며 GFI=.896, AGFI=.871 NFI=.782 CFI=.867, IFI=.889 RMSEA=.0539로

기본모형보다 다소 향상되었다. 또한 결정계수에 있어서도, 최종모형은 기본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기본모형의 $R^2=.034$.174 .028; 최종모형의 $R^2=.099$, .245, 039).

모형 찾기에서 선정된 최종모형에 기초하여 제반 외생변인들의 인과적 단위영향을 보여주는 구조모형을 한국과 미국 양 국가별로 추정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의 추정결과를 우선 살펴보면, 기본모형에서 배제되었던 경로들 가운데 사회단체참여 →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 사회경제적 지위 → 사회단체참여로 향하는 경로만이 이론적·경험적 개연성이 높고 수정지표도 현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사회경제적 지위 → 사회적지원의 연결망활용, 사회적지원의 연결망활용 → 사회제도신뢰로 향하는 경로들은 이론적·경험적 개연성이 낮고 수정지표 또한 현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내생변인과 관련한 결과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단체참여의 인과적 요인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B=.378$), 남성($B=.220$), 광역시($B=-.170$) 등 세 가지 변인이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미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B=.416$) 변인만이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남성, 그리고 기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회단체참여에 적극적인 반면에 미국에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만이 사회단체참여에 적극적이다.

둘째,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의 인과적 요인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사회단체참여($B=.189$), 남성($B=-.144$), 기혼($B=-.470$) 등 세 가지 변인이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미국에서는 사회단체참여($B=.152$), 남성더미($B=-.137$), 기혼더미($B=-.372$), 광역시($B=.130$) 등 네 가지 변인이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 국가 모두 사회단체참여에 적극적인 사람과 여성, 미혼은 사회적 지원을 강한 연계보다는 약한 연계에 요청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한국사회 보다 미국에서 강한 연계보다 약한 연계에 사회적 지원을 요청한다.

셋째, 사회제도신뢰의 인과적 요인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단체참여

(B=.151), 사회경제적 지위(B=-.246) 등 두 가지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미국에서는 사회단체참여(B=.144)변인만이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서는 사회단체참여에 적극적인 사람은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은 데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제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사회단체참여에 적극적인 사람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 > 사회제도신뢰의 인과요인들에 대한 LISREL 추정 결과

변인	한국(N=979)						미국(N=535)						
	단체참여		사회적지원		사회제도신뢰		단체참여		사회적지원		사회제도신뢰		
	r	B	r	B	r	B	r	B	r	B	r	B	
<u>매개 내생변인</u>													
사회적 지원					.048	-						-.017	-
<u>매개 외생변인</u>													
단체참여	-		.090	.180**	.043	.151*			.104	.152**	.158**	.144*	
<u>외생변인</u>													
SES	.387***	.378***	.070	-	-.192***	-.246***	.409***	.416***	.197**	-	.093	.031	
<u>통제변인</u>													
남성 더미	.273***	.220**	-.094*	-.144***	-.024	-.033	.006	.026	-.152**	-.137**	.040	.039	
기혼 더미	.104*	.068	-.451***	-.470***	.006	.005	.109*	.018	-.352***	-.372***	.064	.037	
광역시 더미	-.136**	-.170***	.047	.053	-.005	-.007	.146**	.066	.147**	.130**	-.004	-.023	
R ²	.237		.220		.056		.183		.195		.030		
χ ²	1187.022(df=283) (p<.001)												
모형부합치	GFI=.915; AGFI=.894; NFI=.808												
	CFI=.846; IFI=.847; RMSEA=.0572												
	GFI=.910; AGFI=.888; NFI=.812												
	CFI=.880; IFI=.881; RMSEA=.0517												

주: 1)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계수이며, 통계적 유의도는 비표준화계수에 대한 검증임.
 2) B21, Γ11 계수를 연차적으로 자유모수로 개방하여 추정된 최종모형임.
 3) * p < .05, 단측검증. ** p < .01, 단측검증. *** p < .001, 단측검증.

다음은 사회제도신뢰와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에 대한 직접·간접·전체영향을 분리시킨 경로분석을 시도한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우선, 사회제도신뢰의 경로분석결과를 한국과 미국 양 국가별로 유의미한 요인들과 그 영향에 대한 절대적 크기순서대로 나열하면, 한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B=-.189), 사회단체참여(.151)로 구성되며, 미국에서는 단체참여(B=.144) 변인만으로 구성되었다. 이 같은 결과를 각 변인별로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양 국가 모두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사회단체참여변인을 연결하는 제3의 변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단체참여의 전체영향은 직접영향(한국=.151, 미국=.144)만으로 구성되며 그 인과적 영향은 양 국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은 한국에서 강한 부의 인과적 영향($B=-.189$)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영향($B=-.246$) 및 간접영향($B=.057$) 모두 유의미하였고 전체의 130%가 직접영향으로 구성된다. 반면에 미국에서 직접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으나 간접영향($B=.060$)은 유의미하다. 이상에서 사회제도신뢰에 대한 사회단체참여의 영향은 양 국가 모두 그 영향의 구체적 방향이 이론적 예측과 예외 없이 일치한 반면에 사회제도신뢰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은 양 국가 모두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지 않았다.

한편,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에 대한 경로분석결과를 한국과 미국 양 국가별로 유의미한 인과적 요인들과 그 영향에 대한 절대적 크기순서대로 나열하면, 한국에서는 기혼($B=-.457$), 단체참여($B=.189$), 남성($B=-.102$), 사회경제적 지위($B=.071$) 순으로 구성되며, 미국에서는 기혼($B=-.374$), 단체참여($B=.152$), 광역시($B=.140$), 남성($B=-.133$), 사회경제적 지위($B=.063$) 순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결과를 각 변인별로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 양 국가 모두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과 사회단체참여변인을 연결하는 제3의 변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단체참여의 전체영향은 직접영향(한국=.189, 미국=.152)만으로 구성되며 그 영향은 양 국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둘째, 사회경제적 지위변인은 양 국가 모두 전체영향이 사회단체참여에 의해 전적으로 매개된 간접영향(한국=.069, 미국=.063)으로만 구성되었다. 셋째, 기혼변인은 양 국가 모두 직접영향(한국=-.470, 미국=-.371)만이 유의미한 반면에 간접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넷째, 남성변인은 양 국가 모두 직접영향(한국=-.144, 미국=-.137)이 유의미하고 간접영향은 한국($B=.042$)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광역시 변인은 한국에선 직접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대신에 사회단체참여에 의해 매개된 간접영향($B=-.032$)은 유의미한 반면에 미국에선 사회단체참여에 매개된 간접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대신에 직

접영향(B=.130)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7> 사회적 지원과 사회제도신뢰를 설명하는 요인들의 직접·간접·전체영향을 분리한 LISREL 경로분석결과¹⁾

변인	한국(N=979)						미국(N=535)					
	사회적 지원			사회제도신뢰			사회적 지원			사회제도신뢰		
	직접 영향	간접 영향 ²⁾	전체 영향 ⁴⁾	직접 영향	간접 영향 ³⁾	전체 영향 ⁴⁾	직접 영향	간접 영향 ²⁾	전체 영향 ⁴⁾	직접 영향	간접 영향 ³⁾	전체 영향 ⁴⁾
매개변인												
사회적지원												
단체참여	.189**		.189**	.151**		.151**	.152**		.152**	.144*		.144*
외생변인												
SES		.071**	.071**	-.246***	.057*	-.189***		.063*	.063*	.030	.060*	.090
통제변인												
남성더미	-.144***	.042**	-.102***	-.033	.033*	.000	-.137**	.004	-.133**	.039	.004	.043
기혼더미	-.470***	.013	-.457***	-.026	.010	.016	-.371***	-.003	-.374***	.038	-.003	.035
광역서더미	.033	-.032**	.001	-.006	-.026*	-.032	.130**	.010	.140**	-.023	-.009	-.014

- 1)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계수이며, 통계적 유의도는 비표준화계수에 대한 검증임.
 - 2) 간접영향 = (외생변인이 사회단체참여에 미치는 영향) × (사회단체참여가 사회적 지원에 미치는 영향).
 - 3) 간접영향 = (외생변인이 사회단체참여에 미치는 영향) × (사회단체참여가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 4) 전체영향 = 직접영향 + 간접영향.
- * p < .05, 단측검증. ** p < .01, 단측검증. *** p < .001, 단측검증.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단체참여,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 사회제도신뢰 등에 대한 기술통계 및 판별집합타당성, 상관 및 인과관계의 차이, 매개효과 등을 실증적으로 규명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유교공동체주의와 합리적 개인주의모델의 각기 다른 맥락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과 미국 양 국가를 선정하여 국제사회종합조사(ISSP) 자료모듈인 KGSS 2004와 GSS 2001자료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의 구성개념들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 가설을 제시하여 검증하였다.

첫째, 사회적 자본의 구성개념들(사회단체참여, 사회적 지원, 사회적 신뢰)

은 한국과 미국 양 국가별로 확연히 다른 평균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단체참여는 한국(평균=1.479)보다 미국(평균=1.732)에서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이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단체참여가 미국보다 한국에서 저조한 이유는 1987년 이후 신사회운동을 포함한 사회단체의 급속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공론장이 모순적으로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공간이 존재하는 것과 그 공간에 참여하는 것과는 별개의 개념임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적 지원은 미국(평균=3.187)보다 한국(평균=4.541)에서 약한 연계에 더 활용되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이 한국에서 높게 나타난 분석결과는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집단으로 인해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다고 주장한 연구(유석춘 외, 2002)와 일치된다. 다른 한편, 사회제도신뢰는 한국(평균=1.733)보다 미국(평균=2.075)에서 더 높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제도신뢰가 한국보다 미국에서 높게 나타난 사실은 정치·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제도신뢰가 더 높을 것이라고 제시한 거시적 차원에서의 연구결과(Putnam, 1993, 1995; Fukuyama, 1995)와 부합된다.

둘째, 사회적 자본의 구성개념들(사회단체참여,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 사회제도신뢰)사이에는 판별·집합타당도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더불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의 구성개념들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제각기 해당차원의 개념들만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 차원들이 각기 별도의 개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가정된 3-요인모형이 최적모형으로 판명됨으로써 3-요인모형에 잠재된 사회적 자본의 구성개념들의 판별·수렴타당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아울러, 사회적 자본 구성개념들 사이의 상관관계조차도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사회제도신뢰,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 그리고 사회단체참여 등은 각기 별개의 구성체들로 이루어져있음이 나타났다.

셋째,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적 자본 구성개념(사회단체참여,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 사회제도신뢰)의 불평등을 밝히는데 사용되었다. 사회단체참여와 사회제도신뢰의 인과변인으로 한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제도신뢰에 있어서 강한 부(-)의 상관

및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사회단체참여와 사회적 지원 연결망활용의 인과변인으로서 중요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에서는 사회제도신뢰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연구가설 모두 기각된 결과로 나타났다. 기각된 이유는 통계적 해석과 담론적 해석 두 가지로 논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사례수와 변량 등 통계적 근거에서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구조모형의 추정에 동원된 측정변인 및 이론변인의 수를 감안할 때 제한된 사례 수(한국=979, 미국=535)는 여러 변인들의 변량을 제한하고 표준오차를 증가시킴으로써 각각 사회적 지원 및 사회적 신뢰의 통계적 유의도를 상실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통계적 해석보다 중요한 담론적 해석은 각기 다른 맥락적 설명(유교공동체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그 이유를 예측할 수 있다. 한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과 무관하다는 사실은 서구사회의 인간관계와 유사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교공동체주의모델이 존재함을 보여준 결과이다. 미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제도신뢰와 무관하다는 사실은 한국과 달리 부의 불평등에 대해 당연시하는 미국인의 태도, 개인주의, 시장의 제도화 등 맥락변인에서 설명될 가능성이 높음을 예측하게 한다.

넷째, 사회단체참여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강력한 단위영향과 관련하여 한국($B=.189$)은 미국($B=.15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변인에 매개되어진 간접영향에서도 한국($B=.071$)은 미국($B=.06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정계수의 변화에서도 사회단체참여가 제외된 경우(한국사회의 $R^2=.222$, 미국사회의 $R^2=.173$)에 비하여 포함된 경우(한국사회의 $R^2=.243$, 미국사회의 $R^2=.188$)에 대한 설명력이 각각 2.1%, 1.5%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한국과 미국 양 국가 모두에 있어서 사회단체참여가 사회적지원의 연결망활용의 중요한 선행변인으로 설정되어야 할 계량적 근거를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단체참여의 경제행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영리적 차원의 자기이해와 합리적 선택론에 근거한 신제도주의이론으로만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개별행

위자들이 현재 맺고 있는 사회연결망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본 신경제사회학의 이론적 논의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로써 사회단체참여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유통되는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주는 사회적 자본의 척도로서 의미 있는 구성지표이다.

다섯째, 사회단체참여의 사회제도신뢰에 대한 단위영향은 미국($B=.144$, $p<.05$)보다 한국($B=.151$, $p<.05$)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사회경제적 지위변인에 매개되어진 간접영향에서는 한국($B=.057$, $p<.05$)보다 미국($B=.060$, $p<.05$)에서 높게 나타났다⁵. 또한 결정계수의 변화에 있어서도 사회단체참여가 제외된 경우(한국사회의 $R^2=.037$, 미국사회의 $R^2=.028$)에 비하여 포함된 경우(한국사회의 $R^2=.056$, 미국사회의 $R^2=.030$)의 설명력은 한국과 미국 각각 1.9%, .02%의 증가를 보였다. 양 국가 모두 설명력은 작은 증가를 나타냈으나 단위 영향 및 간접영향 모두 높게 형성되어 사회단체참여가 제도신뢰의 중요한 선행변인으로 설정되어야 할 계량적 근거를 시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적 시민정신의 연구결과들(Tocqueville, 1845; Putnam, 1993, 1995)과 일치됨으로써 사회단체참여는 한국과 미국 양 국가 모두 사회적 신뢰의 중요한 관건임을 밝혀냈다. 그러나 미국보다 한국에서 사회단체참여가 사회적 신뢰에 약한 정의 인과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사실은 1987년 이후 사회단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시민의 정치참여를 높이는데 일정정도 기여했으나 민주적 시민덕목을 배양하는데 있어서는 그리 성공하지 못한 데에서 추측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복적 참여 및 자기이해(self-interest)에 기초한 소극적 참여에서 호혜성 규범과 사회적 신뢰형성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으로의 사회단체참여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이 사회제도신뢰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은 양 국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 자본의 연구결과(Pagden, 1988; Fukuyama, 1995; 김용학. 손

5. 이와 반대로, 결측치에 개별평균값을 대체하기전의 LISREL 추정결과에서, 사회단체참여의 제도신뢰에 대한 단위영향은 미국($B=.169$, $p<.05$)이 한국($B=.133$, $p<.05$)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변인에 매개되어진 간접영향에서도 미국($B=.049$, $p<.05$)이 한국($B=.043$, $p<.05$)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석, 1998; 이재열, 1998)에서 제시된 반경범위, 내집단 족쇄, 연고 집단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가족 및 개인연결망 활용이 공적영역의 신뢰를 식민화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저신뢰사회가 된다고 주장한 논의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즉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과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사이의 관계가 서로 양립 가능한 현상을 보여주어 매개역할 또한 기각되었다.

종합컨대, 사회단체참여는 한국에서 사회제도신뢰에 대한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관계와 유의미한 정(+)의 인과관계로 작동하는데 비해 미국에서는 상관 및 인과관계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단체참여가 미국보다 한국에서 사회적 지원의 연결망활용에 강한 정(+)의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미국은 약한 정(+)의 인과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단체참여의 중요한 인과변인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양 국가 모두 강한 정(+)의 인과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적 자본의 두 가지 구성개념(사회제도신뢰 및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과적 영향은 사회단체참여에 의해 매개되었다는 사실 또한 이 연구에서 밝혀냈다.

이상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양 국가 모두 설명력(한국의 R^2 : .237, 220, .056; 미국의 R^2 : .183, 195, 030)이 낮게 형성되었다는 점과 KGSS 2004와 GSS 2001 자료에 한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004년과 2001년이라는 특정한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론적·경험적으로 함축하는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적 타당성의 문제점을 지닌다. 그리고 이 연구는 전국규모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지만 시계열적 자료를 통한 상관 및 인과관계의 정밀한 검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에서 제시된 모델들을 보다 정교화하는 이론적 작업과 더불어 다양한 변인들을 충분히 활용하며 통시적 연구 및 국가간의 비교연구 등을 통해 경험적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연구자의 관심과 노력으로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국민호. 1997. 「동아시아경제발전과 유교」. 『한국 사회학』 31권 1호. pp. 29-59.
- 김상욱. 2001. 「조직몰입의 하위차원들의 타당도평가」. 『한국 사회학』 35권 3호. pp. 109-138.
- 김용학·손재석. 1998. 「미시적 신뢰와 거시적 위험」. 『계간사상』 38. pp. 115-132.
- 이재열.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사상』 38. pp. 65-93.
- 유석춘 외. 2002. 「사회자본과 신뢰: 한국, 일본, 덴마크, 스웨덴 비교 연구」. 『동서연구』 14권 1호. pp. 101-135.
- 장수찬. 2002.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한국정치학회보』 36권 1호. pp. 87-112.
- 한국 사회과학도서관 홈페이지. 2005. <http://www.kssl.or.kr>
- Banfield, E. 1967.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New York: Free Press.
- Billiet, J.B and Bart, Cambre. 1999. "Social capital, active membership in voluntary associations and some aspec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Jan W. van Deth, Marco Maraffi, Ken Newton & Paul. F. Whiteley (ed.).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London: Routledge.
- Bourdieu, Pierre. 1984. *The Distinction: A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ehm, John & Wendy, Rahn.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pp. 999-1023.
- Burt, R. 1992. *Structure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eman, Jame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 94-121.
- DiMaggio, Paul and Hugh Louch. 1998. "Socially Embedded Consumer Transaction : For What Kinds of Purchases Do People Most Often Use Network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pp. 619-637.
-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perty*. New York: Free Press Paper Backs Book.
- Gambetta, Diego.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Financial Capital: The Case of Network Marketing*. Champaign: Stipes.
- Ganzeboom, H. B. G., and D.J. Treiman. 1996. "Internationally Comparable Measures of Occupational Status for the 1988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25. pp. 201-239.

- Giddens, Anthony.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 Stanford UP.
- Granovetter, Mark.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pp. 481-510.
- Inglehart, R. 1999.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öreskog, Karl, G. and Sörbom, Dag. 1989. *LISREL 7: A Guide to the Program and Applications*. Chicago: SPSS Inc.
- Lin, Nam. 1982. "Social Resource and Instrumental Action." In *Social Structure and Network Analysis*. edited by Peter Marsden and Nan Lin Beverly Hill, CA: Sage Publication.
- Loury, Glen. 1977. "A Dynamic Theory of Racial Income Difference." In P.A. Wallace & A. LeMund (eds.). *Woman, Minorities and Employment Discrimination*. Lexington: Lexington Books.
- Luhmann, Niklas. 1988. "Familiarity, Confidence, Trust: Problems and Alternatives." In D. Gambetta (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New York: Basil Blackwell.
- McPherson, J. Miller. 1983. "An Ecology of Affili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pp. 519-532.
- Newton, Kenneth.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pp. 575-586.
- Newton, Kenneth. 1999.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in Modern European." In Jan W. van Deth, Marco Maraffi, Ken Newton & Paul. F. Whiteley (eds.).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London: Routledge.
- Olson, M.E.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agden, Anthony. 1988. "The Destruction of Trust and its Economic Consequence in the Case of Eighteenth-century Naples." In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edited by D. Gambetta. Oxford: Blackwell.
- Paxton, Pamela. 1999. "Is Social Capital Declining in the US? A Multiple Indicator Assess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 pp. 88-126.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 and Application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pp. 1-24.
- Portes, A. 2000. "The Two Meaning of Social Capital." *Sociological Forum* 15(1). pp. 1-12.
- Putnam, Robert. 1993.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1995. "Bowling Alone: American'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pp. 65-78.
- Sztompka, P. 1999. *Trust: A Sociological Theo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queville, Alexis de. [1835, 1840] 1990. *Democracy in America*(Reprint). New York: Vintage.
- Verba, Sidney, Kay Lehman Schlozman and Henry E.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Williamson, Oliver E. 1993. "Calculativeness, Trust and Economic Organiz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6(3). pp. 453-486.
- Zucker, Lynn G. 1986. "Production of Trust: Institutional Sources of Economic Structure."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8. pp. 53-111.

Comparison Analysi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Causal Structure of Trust in Social Institutions: With a focus on Mediation Effects of Association Participation and Social Support

Sang-don, Kim

Lecturer in The University College at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multiplicative relationships among socioeconomic status, association participation, social support, social institutions trust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do this, a set of hypotheses concerning the relationships among socioeconomic status, association participation, social support, trust in social institutions are set forth and subjected to an empirical assessment by using data set collected from 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2004 and GSS (General Social Survey) 2001 out of the 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lanning) Modules.

Analysis of data in terms of ML (Maximum Likelihood) procedure in LISREL8.52 was used and the results were the followings: (1) The unit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on association participation were significant to the two nations. (2) The unit effects of association participation status on social support were significant to the two nations. but They were appear to be an important predictor to Korea (3) The unit effects of association participation on trust in social institutions were significant to the two nations. (4) Association participation was especially in

shaping social support and trust in social institutions to the two nations.

This study is interpreted that further research on the topic of social capital are raised with elaborating the measure on the socio-psychological variables such as political efficacy, consciousness of social class and so forth, coupled with advertising a few limitation of this study.

Keyword: Socioeconomic Status, Association Participation, Social Support, Trust in Social Institutions, KGSS, GSS, ISSP

김상돈.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강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한일타운 119동 703호 440-709
Tel_011 9120 1323 E-mail_education17@hanmail.net

